

한국담배인삼공사 구조조정에 따른

건의 (안)

의안 번호	32
----------	----

제안년월일 : 1998. 10. 8

제안자 : 산업경제위원장

1. 주 문

- 한국담배인삼공사 구조조정과 관련 청주, 충주, 옥천창  
존치 건의

2. 제안 이유

- 한국담배인삼공사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지방재정, 담배경  
작농 등에 손실이 우려되어 청주, 충주, 옥천창 존치를 요망

3. 참고 사항

“ 없 음 ”

## 한국담배인삼공사구조조정에따른건의(안)

존경하는 국회의장 (재경부장관, 농림부장관, 기획예산위원장) 님

희망찬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복지국가 실현과 민생 안정에 전념하시고, 특히 농업인 권익보호와 담배경작자 소득증대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국회의장 (재경부장관, 농림부장관, 기획예산위원장) 님께 150만 충북 도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IMF 구제금융 체제하에서 산업분야, 금융분야, 공공부분 등 모든 분야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구조조정은 국가 전체로 보면 충분한 이유가 있겠으나,

청주 원료, 제조 복합공장, 충주, 옥천원료공장의 폐쇄 계획은 우리도와 도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도에는 5,279호에 달하는 담배재배농가가 있으며, 이들 농가가 생산하는 잎담배는 최우량품종인 황색종으로써 연간 13,049 M/T으로 전국 1위를 점하고 있으며 737억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농작물 소득의 6%를 점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조  
창 및 원료공장의 폐쇄는 황색 업연초 생산 종주지역으로써  
자긍심 손상은 물론 재배농가 감소로 농가소득이 대폭 축소  
될 것이며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들에게 시름을 안겨줄 것 입  
니다.

둘째, '98년 9월 현재 우리도에 위치한 3개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는 총 840여명으로 연간 근로소득이 420억원에 달하며, 복합  
공장인 청주제조창과 충주, 옥천원료공장이 모두 폐쇄되면 지  
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각 분야로 파급되는 손실이 너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며 IMF하에 침체된 지역 경제가  
날로 악화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셋째, '97년 기준으로 청주제조창 및 원료공장에서 493백만원, 충주  
원료공장 260백만원, 옥천원료공장에서 59백만원의 지방세수  
가 우리도 재정 및 해당 시군에 재정적 보탬이 되고 있습니  
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낮은 우리도 실정에서 요긴한 재원인 바, 이들 공장 폐쇄는 열악한 지방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 입니다.

넷째, 한국담배인삼공사측에서도 전국 제1의 황색엽연초 주산지 공장 폐쇄는 물류비용을 증가시키고 기존 청주창을 폐쇄하고 영주창을 신설하면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특히 이러한 중복, 과다 투자는 곧 국가의 재정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국적인 황색엽연초 생산 중심권내에 위치한 본도 소재 제조창 및 원료공장 폐쇄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뿐만 아니라 특히 최우수 황색종 잎담배 생산 종주지역(중북부 지방 46.1% 점유)으로서 원료공장을 존치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함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판단되며,

복합공장인 청주제조창은 각종 규제완화(독점폐지) 조기 시행계획과 연계, 민영화 하여도 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오니 반드시 존속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재경부장관, 농림부장관, 기획예산위원장) 님

우리 지방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시어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구조조정시 우리도 엽연초 생산농가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함은 물론 기존 원료공장 및 제조창을 존치함으로써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150만 충청도민의 염원을 간곡히 건의 하오니 지방자치의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 10. 8.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